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5학년도 한국외대
모의 논술 및 에세이 자료집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4. 9. 11(목) 10:00 ~ 9. 15(월) 18:00		· 본 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hufs.ac.kr)	· 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접수만 실시합니다.
자기소개서 입력		2014. 9. 11(목) 10:00 ~ 9. 16(화) 17:00		·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adms.hufs.ac.kr)	· 학생부종합전형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입력하고, 미 입력 시 0점 처리합니다.
지원서류 제출 (해당자에 한함)		2014. 9. 11(목) ~ 9. 16(화) 10:00 ~ 16:00		(우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관실(학생부종합전형) 입학관리팀(학생부종합전형 이외 전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해당자에 한함)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9. 13(토) ~ 14(일)은 방문접수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형일	외국어특기자전형 (에세이)	2014. 9. 27(토) 10:00 ~ 11:30		· 서울캠퍼스 지정장소 (글로벌캠퍼스 지원자도 서울캠퍼스에서 모든 전형을 실시합니다.)	·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수험생 유의사항'(수험고사실 안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의 수험고사실 안내는 1단계 합격자 발표로 갈음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일반] (면접평가)	서울 전 모집단위 (영어학부, 경영학부 일부 제외) 글로벌 영어통번역학부 일부	2014. 10. 18(토) 09:00 ~		
		서울 영어학부 경영학부 일부 글로벌 전 모집단위 (영어통번역학부 일부 제외)	2014. 10. 19(일) 09:00 ~		
	학생부종합전형 [고른기회] (면접평가)	서울 해당 모집단위 전체	2014. 10. 18(토) 09:00 ~		
	논술전형 (논술고사)	서울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2014. 11. 22(토) 09:00 ~ 11:00		
		서울 상경대학 글로벌경영대학 LD학부	2014. 11. 22(토) 14:00 ~ 16:00		
		서울 중국어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국제학부	2014. 11. 23(일) 09:00 ~ 11:00		
		서울 동양어대학 일본어대학 글로벌 해당 모집단위	2014. 11. 23(일) 14:00 ~ 16:00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		2014. 10. 15(수) 14:00		·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adms.hufs.ac.kr)	·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개별 통지하지 않음)
최초 합격자 발표	학생부종합전형 외국어특기자전형	2014. 10. 31(금) 14:00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2014. 12. 5(금) 14:00			
최초합격자 등록예치금납부		2014. 12. 8(월) ~ 12. 10(수)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1차 추가합격자 발표		2014. 12. 10(수) 22:00		·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adms.hufs.ac.kr)	·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개별 통지하지 않음)
1차 추가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2014. 12. 11(목) 09:00~16:00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2차 추가합격자 발표		2014. 12. 11(목) 22:00		·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adms.hufs.ac.kr)	·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개별 통지하지 않음)
2차 추가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2014. 12. 12(금) 09:00~16:00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3차 추가합격자 발표		2014. 12. 12(금)		· 전화 개별 통보	
3차 추가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2014. 12. 15(월) 09:00~16:00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4차 추가합격자 발표		2014. 12. 15(월) 21:00까지		· 전화 개별 통보	
4차 추가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2014. 12. 16(화) 09:00~16:00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잔여등록금 납부		2015. 1. 30(금) ~ 2. 2(월)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 자세한 내용은 2015년 1월 중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상기 일정은 본 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에게 충원 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충원 합격 시 안내되는 등록 마감일까지 정해진 등록 포기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한국외대 모의 논술 및 에세이 자료집

01 2015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
02 2015학년도 모의 논술 출제 의도 및 해설
03 2015학년도 모의 논술 출제 및 채점 기준
04 2015학년도 모의 에세이 문제
05 2015학년도 모의 에세이 출제 의도
06 2015학년도 모의 에세이 채점 기준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시험

논 술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험번호 ( ) 지원모집단위 ( ) 성명 ( )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1863년 유럽에 처음 등장한 기차를 타본 뒤 극심한 전율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당시 기차는 시속 30~40㎞에 불과했지만 마차보다 3배나 빨랐다. 주변 풍경을 음미할 여유 따위의 여행 과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목적지만 남는 것을 경험한 하이네는 "철도가 공간을 살해했다."는 명언을 남겼다. 철도 여행으로 상징되는 속도가 인간의 일상과 의식, 문화, 심리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견한 것이다. 밀란 쿤테라는 그의 소설 『느림』에서 "자본주의와 느림은 상극이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만연은 사람에게 속도를 강요했다고 갈파했다. 19세기 이후 기계에 의한 동력이 개발되면서 사람은 '속도'라는 효율에 갇혀 '느림'의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각박해진 세상은 사람들의 걸음걸이에도 속도감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걸음 속도가 10여 년 전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영국 허트포드셔대학 리처드 와이즈만 교수팀은 최근 세계 32개 도시 사람들의 걸음 속도를 측정한 결과 1994년 조사 때보다 평균 10%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60피트(약 18m)를 걷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3.76초에서 12.49초로 1초 이상 빨라진 것이다. 한편 걸음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사회 · 경제적 변화가 극심한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용' 국가였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보행자들은 60피트를 10.55초에 걸어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1994년 세계인의 걸음 속도를 측정한 캘리포니아대학 로버트 레빈 교수는 "사람은 빨리 움직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 가능성이 작아지며 심장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압축적인 근대화를 달성한 한국의 경우 '속도'에 대한 집착은 눈에 띄는 현상이다. 급속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했던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성장만능주의와 결합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세계 최대의 선박생산국, 세계 최대의 컴퓨터 D램 생산판매국 등 좋은 성적도 거두었지만, 동시에 전 세계 행복지수 순위 102위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제는 '한국식 속도전'의 문제점을 깨닫고 삶의 인간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한다. 속도가 아닌 느림의 미학에 관해 다시 생각할 때다.

- 〈ㅇㅇ일보〉 기사 일부 수정

자료 2

One thing that distinguishes the new economy from the old one is 'speed.' To succeed on the digital playing field, where speed plays a critical role, global companies must move closer to fulfilling customers' demands in real time. As such, the ability to analyze information rapidly to establish timely corporate policies is essential. Traditional hierarchical decision-making is too slow to cope with the realities of the new digital market. Most existing knowledge management and reporting systems are not geared to support high-speed business activities. To compete in a market filled with greater volatility* and uncertainty, all companies need to be nimble** and fast. Global firms, in particular, will need to speed up their business and adjust processes, strategies and business models as events unfold. In a world where markets are in perpetual flux, product development and sourcing strategies must realign more quickly. The key to success in new global economy lies in speed which enables a business to effectively deal with rapidly changing realities.

- Oxford Economics, *The New Digital Economy*

* 불안정성, 변동성

** 재빠른, 민첩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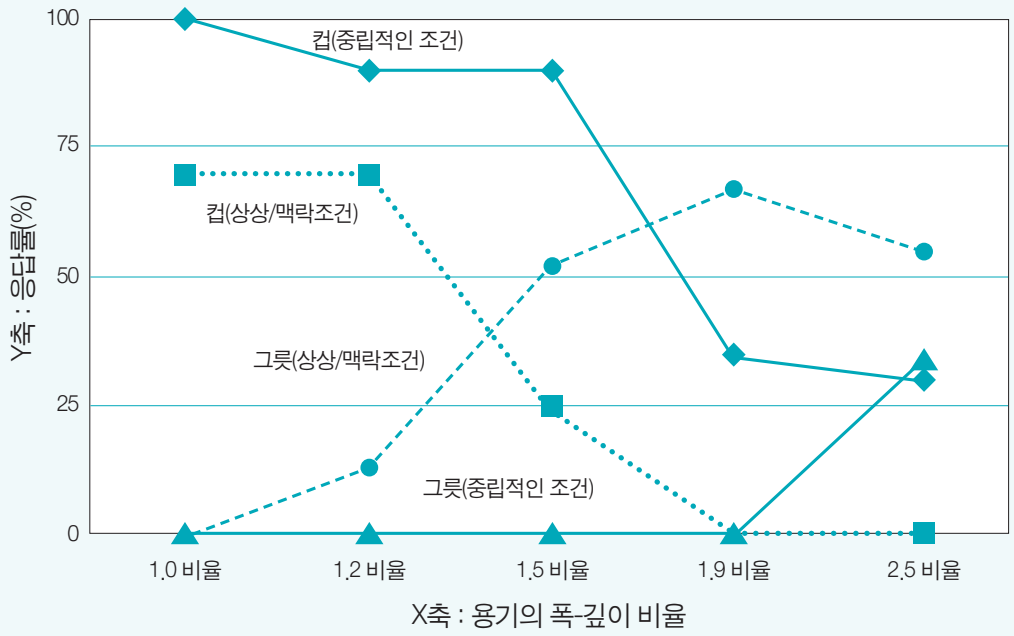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문제 2]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Ⅱ.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3

다섯 가지 용기에 대한 실험참가자의 응답률



※ 실험참가자가 모든 문항에 응답한 것은 아님.

저명한 사회언어학자 Labov는 언어사용자들이 무엇을 '컵(cup)'이라 부르고 무엇을 '그릇(bowl)'이라 부르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개념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Labov는 실험참가자들에게 용기(container) 그림을 보여주고 그것이 '컵'인지 '그릇'인지 답하도록 했다. 실험에 사용된 다섯 가지 용기들은 깊이에 대한 폭의 비율(폭-깊이 비율)이 1.0에서 2.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그려졌다. 위 그래프에서 실선은 각각의 용기를 '컵(cup)'이라 명명한 실험참가자의 비율과 '그릇(bowl)'이라 명명한 실험참가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실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폭-깊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컵(cup)'이라고 대답하는 피험자의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X-축의 우측 끝에 이르게 되면, 폭-깊이 비율이 2.5인데, 이때는 단지 25%의 실험참가자만 '컵(cup)'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림에서 점선 그래프는 실험참가자들에게 '용기가 탁자 위에 놓여 있고, 용기 안에 으깬 감자가 들어있다'고 상상하도록 지시한 뒤 얻은 결과를 보여준다. 상상/맥락 조건에서는 '컵(cup)'이라는 반응이 적어지고, '그릇(bowl)'이라는 반응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컵(cup)'에서 '그릇(bowl)'으로 응답이 점차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사물에 대한 인간의 범주화는 그 속성뿐 아니라 그 사물이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 John Anderson,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자료 4

한국인은 범주화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그 능력은 기질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인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나이, 고향, 출신 학교 등 신상명세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한다. 그런 기본적인 정보로 상대방을 어떤 범주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불편하다 못해 불안 증세마저 보인다.

그런 기질은 편견과 '편 가르기'가 발휘되는 토양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속도에 대한 숭배는 체질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범주화 게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그런 독특한 기질을 갖게 된 것은 인구의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높은 인구밀도 때문이다. 이는 달리 '구별 짓기'를 할 것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전문가들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를 진지하게 따지는 것이 가장 성행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럽게 구별 짓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별 짓기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욕망이 범주화 게임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어느 범주(편 또는 패거리)에도 속하지 않은 채 홀로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 강준만, 『한국인의 범주화 기질과 본질주의 성향』

자료 5

많은 학생과 회사원은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꿈꾼다. 그들은 "마이클 델이 기숙사 방에서 델컴퓨터라는 회사를 시작해 텍사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도 그러한 일을 못하겠는가?"라고 생각한다. 델과 같은 성공담은 기업가 정신을 북돋운다. 기업가(entrepreneur)를 엄격하게 정의한다면 혁신적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해당 사업체가 혼자 다루기에 역부족이거나 소수의 사람만으로는 운영이 힘들 정도로 크게 되는 경우 기업가는 총괄 경영자가 된다.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도 사업체가 성장하여 몇몇 종업원을 두게 되는 경우 경영자가 된다. 자영업자는 심적, 물적 에너지를 자신의 사업체에 쏟아 붓는다. 주목할 점은, 기업가는 자영업자로 출발하지만, 자영업자 모두가 기업가인 것은 아니다. 기업가의 엄격한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샌드위치를 파는 프랜차이즈 운영자를 기업가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 Andrew Durbin, *Essentials of Management*

문제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범주화의 대상, 기준, 효과의 측면에서 각각 비교분석 하시오. (400자 내외)

[문제 4] 〈자료 3〉의 그래프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자료 5〉에서 사용된 범주화 방법, 즉 사전적 정의에 의한 방법에 적용하여 상상/맥락 조건하에서 컵과 그릇의 범주화를 재시도해 보시오. (500자 내외)

2015학년도 모의 논술 출제 의도 및 해설

출제 의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Part.1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속도' 문제를 핵심 논제로 하여 1개의 국문 〈자료〉와 1개의 영문 〈자료〉로 [문제]를 구성했다. 두 자료는 주제와 관련한 분야의 텍스트들이다. [문제]는 〈자료〉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두 〈자료〉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읽어내는 능력, 그것을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능력과 연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2〉는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영문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지식과 정보가 유례없이 빠르게 유통되는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매체가 되는 외국어 실력, 특히 영어 실력의 선취가 필수적이라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 때문이었다. 영문 〈자료〉는 어휘, 통사구조, 개념과 관련하여 난이도 측면에서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 영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이고, 분량도 200단어 내외여서 의미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는 글이다.

Part.2에서는 범주화와 관련된 세 개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범주화의 개념파악과 적용을 통해 학문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고력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자료 3〉은 '컵(cup)'과 '그릇(bowl)'의 범주화 경계가 모호함을 보여준 Labov의 실험을 소개하는 글이다. 사물 이름에 대한 인간의 범주화는 대상 사물의 '폭-깊이 비율' 같은 속성이나 그 사물이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을 밝힌 글이다.

〈자료 4〉는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범주화 성향을 비평한 글이다.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편 가르기 현상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자료 5〉는 마이클 델과 같은 기업가의 성공을 사례로 사업체 운영자의 유형을 '기업가(entrepreneur)'와 '자영업자(small-business owner)'로 구분하는 글이다.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성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 글로서 국제화 시대에 혁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료 출전

논술고사에 활용된 국문과 영문 자료는 독립된 저작물에서 추출하기보다는 원저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한 다음 이를 출제의도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국문 자료는 국내 여러 일간신문의 논설, 기사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윤문하여 사용하였다. 논술고사에 활용된 〈자료〉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 1〉 국내 여러 일간신문의 논설, 기사 중에서 필요한 내용과 표현을 추출하여 수정 및 편집 사용

〈자료 2〉 Oxford Economics에서 출간한 연구보고서인 '*The New Digital Economy*'에서 핵심 문구를 추출하고 이를 문맥에 맞게 편집, 첨삭

〈자료 3〉 John Anderson,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자료 4〉 강준만, '한국인의 범주화 기질과 본질주의 성향', 『인물과 사상』. 2007

〈자료 5〉 Andrew Dubrin, *Essentials of Management*

각 자료 요지

〈자료 1〉 국내 일간지 관련기사 및 사설을 바탕으로 발췌 및 변용한 것으로 '빠른 속도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요구'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느림의 미학'으로의 방향전환을 주장하는 내용의 국문 자료이다.

〈자료 2〉 Oxford Economics의 연구보고서 *The New Digital Economy*에서 발췌 및 변용한 것으로 디지털 신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스피드'의 중요성을 역설한 영문 자료이다.

〈자료 3〉 이 글은 컵과 그릇을 대상으로 중립적인 조건과 상상/맥락이 조건에 따라 언어사용자들의 반응을 실험한 내용이다. 이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폭과 깊이의 비율을 지닌 용기를 컵 또는 그릇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확실한 기준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상상/맥락의 조건을 부여했을 때는 중립적인 조건과는 또 다른 양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 언어사용자들은 용기의 폭과 깊이의 비율에 따라 점차 컵에서 그릇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립적 조건과 상상/맥락적 조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4〉 한국인은 사회문화 풍토에 따라 발전된 '구별 짓기'를 잘하는 성향이 있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일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구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범주화를 지속하고 있다.

〈자료 5〉 경영자는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는 기업가나 자영업자를 말한다. 단, 기업가는 자영업자와는 달리 혁신적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기업가는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의를 근거로 범주화한다면 혁신성 여부에 따라 사업가를 기업가와 자영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적 측면

① 한국외대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language studies) 연구를 내용요소로 그대로 유지한다.

② 한국외대의 통합논술 교육의 목표인 1.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2.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3.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4. 올바른 가치관 정립, 5.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6.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③ 새로운 출제 지침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에서 다룬 주제를 활용한다.

④ 문학, 비문학 지문을 고루 활용하되 제시문은 개념과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한다.

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⑥ 실험결과, 비평, 개념 적용 사례의 다양한 범주의 내용과 도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⑦ 기본적인 학습 역량에 주안점을 두어 앞의 두 문제에서는 요지 파악, 비판 평가를, 뒤의 두 문제에서는 비교분석, 적용 및 추론능력을 물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형식적 측면

① Part.1에서는 국문, 영문 자료 하나씩으로 구성하고, Part. 2에서는 국문 자료 세 개로 지문을 구성한다.

② 첫 번째 문항은 핵심어(key word)가 아닌 요지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③ 두 번째 문항은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도록 출제하였다.

④ 세 번째 문항은 〈자료 3〉과 〈자료 4〉의 비교 대상을 제시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⑤ 네 번째 문항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범주화한 사례를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범주화의 실험결과 그래프를 재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적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2015학년도 모의 논술 출제 및 채점 기준

Part I

〈자료 1〉 출처 : 국내 일간지 관련기사 및 사설을 바탕으로 작성

〈자료 2〉 출처 : Oxford Economics의 *The New Digital Economy*를 바탕으로 작성

영어 〈자료 1〉의 우리말 번역

신경제를 구경제와 구분해주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스피드'이다. 스피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층 더 다가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기업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위계질서에 따른 전통적인 의사결정은 너무 느려서 새로운 디지털 마켓의 현실에 대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대부분의 현존하는 지식경영과 보고체계는 빠른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구조이다. 점증하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은 사업 전개과정중이라도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프로세스, 전략 및 비즈니스모델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 변화무쌍한 글로벌 무대에서 상품개발 및 자원조달전략은 한층 더 빠르게 재편되어야 하는 것이다. 글로벌 신경제 하에서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는 급변하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스피드인 것이다.

문제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

〈자료 1〉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빠른 속도를 강요함으로써 걸음걸이 속도마저 변화시켰다. 한국식 속도전 문화는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느림의 미학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자료 2〉 디지털 신경제 체제로 변모한 현 시장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속도(스피드)이다. 전통적인 경영방식에서 탈피하고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민첩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평가지침

이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시장경제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담은 자료에 대해 각 주장에 대한 요지를 추출하여 기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상반된 두 자료를 200자 내외로 짧게 요약하여야 하므로 핵심어를 추출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간명한 서술로 연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부작용, 디지털 경제체제의 도래 등에 관한 주제는 이미 고등학교 정규과정의 「한국 근-현대사」, 「경제」, 「사회」 등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주제로서 수험생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고, 교육방송을 포함한 미디어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므로 고등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주제를 파악하고 요지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채점 시에는 정확한 요지파악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는 100자 내외의 상당히 짧은 서술이 할당되므로 표현력이나 논리적인 구성력을 보기보다는 핵심논지를 적절히 추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곧 배점의 기준이 되므로 간명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각 자료의 요지를 명확하게 서술한 것.
	A0	
	A-	
B	B+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였으나, 각 자료의 요지를 다소 불명확하게 서술한 것.
	B0	
	B-	
C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각 자료의 요지를 적절히 서술하지 못한 것.
D		핵심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였고, 각 자료의 요지를 서술하지 못한 것.
F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문제 2]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논제는 '속도'이다. 〈자료 1〉은 빠른 속도를 지향하는 근대 자본주의의 요구가 인간적 가치나 행복감의 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보고 지속가능성과 느림의 미학으로의 방향전환을 요청한다. 반면 〈자료 2〉는 디지털 신경제 하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속도(스피드)이므로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민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지침

이 문제는 자본주의와 신경제체제 하에서 '속도'를 바라보는 〈자료 1〉과 〈자료 2〉의 상반된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따라서 답안을 작성할 때 〈자료 1〉의 내용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의 타당성을 인정하되 〈자료 2〉에 나타난 스피드의 중요성 측면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의 초점은 서로 다른 관점의 두 자료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 현실을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다. 지나친 속도추구의 부작용을 인식함과 더불어 오늘날 변화된 경제 현실에서 빠른 속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회적 차원에서는 속도의 포기가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나 느림의 미학이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이해함과 더불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변화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지적하게 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요청하거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필요성 등을 기술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 〈자료 1〉과 〈자료 2〉가 연계되어야 함. - 현대사회, 경제체제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는 '속도의 중요성'이 지적되어야 함. - 지나친 속도추구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는 속도의 포기가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이 지적되어야 함. - 변화된 현실에 대한 다면적 인식과 평가, 즉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견해가 필요함.
	A0	
	A-	
B	B+	〈자료 1〉과 〈자료 2〉의 시각의 차이를 올바로 파악하였으나 〈자료 1〉의 취지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였을 경우.
	B0	
	B-	
C		〈자료 1〉과 〈자료 2〉의 시각의 차이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D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F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Part II

〈자료 3〉 출처 : John Anderson,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자료 4〉 출처 : 강준만, '한국인의 범주화 기질과 본질주의 성향', 『인물과 사상』. 2007.

〈자료 5〉 출처 : Andrew Dubrin, *Essentials of Management*

〈자료 3〉, 〈자료 4〉, 〈자료 5〉의 요지

〈자료 3〉 '컵(cup)'과 '그릇(bowl)'의 범주화 경계가 모호함을 보여준 Labov의 실험을 소개하는 글이다. 우리는 단어를 사용하여 개념을 범주화하지만, 각각의 단어가 의도한 범주 항목에 무엇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컵(cup)', '그릇(bowl)' 같은 사물 이름에 대한 범주화는 대상 사물의 '폭-깊이 비율' 같은 속성뿐 아니라 그 사물이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달라진다.

〈자료 4〉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범주화 성향을 비평한 글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은 사람을 만날 때, 나이, 고향, 출신 학교 등 신상명세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분류한다. 이러한 범주화 능력/기질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이나 높은 인구밀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람을 신상 특징에 따라 범주화하는 기질로 인해 편견과 '편 가르기'가 생겨나기도 한다.

〈자료 5〉 마이클 델과 같은 기업가의 성공을 사례로 사업체 운영자의 유형을 '기업가(entrepreneur)'와 '자영업자(small-business owner)'로 구분하는 글이다. 저자에 따르면, 기업가와 자영업자로 범주화하는 기준은 '혁신적 아이디어의 유무'이다. 샌드위치를 파는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자영업자는 될 수 있어도 기업가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부재 때문이다.



문제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범주화의 대상, 기준, 효과의 측면에서 비교분석 하시오.(400자 내외)



평가지침

제시된 자료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는 '범주화(categorization)'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료 3〉에서 논의한 범주화와 〈자료 4〉에서 논의한 범주화를 대상, 기준, 효과 측면에서 비교하여 논술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초점은 〈자료 3〉과 〈자료 4〉에 대해 '범주화의 대상', '범주화의 기준', '범주화의 효과'를 빠짐없이 대응시켜 논술함으로써 마치 교차분석표(cross-tabulation)를 말로 풀어쓴 듯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답안은 다음의 내용적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구 분	〈자료 3〉	〈자료 4〉
'범주화의 대상'	용기 또는 사물/어휘의 개념 (예: '컵', '그릇')	(인간관계 속에 등장하는) 상대방/사람
'범주화의 기준'	사물의 속성	상대방의 나이, 고향, 출신 학교 등 신상명세
'범주화의 효과	명확한 범주화가 불가능하며, 특정 범주에서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접 범주의 경계에 놓일 수 있는 애매한 사례가 발생함	편견, 편 가르기, 패거리 문화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지문을 비교하여 일반적인 논제가 다양한 소재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발견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범주화의 대상, 기준, 효과에 대해 〈자료 3〉과 〈자료 4〉를 모두 포함시켜 논술해야 함. 모범 답안의 구성 요소는 '평가지침'에 나오는 6개 사항임: ① 대상-〈자료 3〉, ② 대상-〈자료 4〉, ③ 기준-〈자료 3〉, ④ 기준-〈자료 4〉, ⑤ 효과-〈자료 3〉, ⑥ 효과-〈자료 4〉. 이 6개 내용 항목 중 1개 또는 2개 항목을 생략했거나 기술했어도 논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 A0 또는 A-로 판정함.
	A0	
	A-	
B	B+	① 대상-〈자료 3〉, ② 대상-〈자료 4〉, ③ 기준-〈자료 3〉, ④ 기준-〈자료 4〉, ⑤ 효과-〈자료 3〉, ⑥ 효과-〈자료 4〉의 6개 내용 항목 중 3-5개 항목을 생략했거나 기술했어도 논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 B+, B0 또는 B-로 판정함.
	B0	
	B-	
C		범주화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기술하였으며, 그 내용이 주어진 자료와 최소한의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 경우
D		범주화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기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주어진 자료와 논리적 연관성을 거의 갖지 않는 경우
F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문제 4] 〈자료 3〉의 그래프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자료 5〉에서 사용된 범주화 방법, 즉 사전적 정의에 의한 방법에 적용하여 상상/맥락 조건하에서 컵과 그릇의 범주화를 재시도해 보시오. (500자 내외)



평가지침

이 문제는 먼저 상상/맥락 조건하에서의 실험결과인 두 점선에 대한 관찰을 통해 컵과 그릇에 대한 인식의 경계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래프 해독력을 묻고 있다. 따라서 인식의 경계점으로서의 두 점선의 교차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 교차점에서는 컵이라고 명명한 응답률과 그릇이라고 명명한 응답률이 같으므로 인식의 경계점으로 추론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교차점에 해당하는 X축은 대략 1.4의 폭-깊이의 비율을 갖는다.

둘째, 폭-깊이 비율이 대략 1.4인 용기에 대해 피험자들의 응답률이 같았으므로, 이를 범주화 기준으로 삼아 〈자료 5〉에서와 같이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컵과 그릇을 재범주화하면 된다. 즉, 이 실험결과를 〈자료 5〉의 범주화 방법에 적용해 사전적으로 정의해본다면 폭-깊이 비율이 1.4보다 적은 용기는 컵으로, 1.4보다 큰 용기는 그릇으로 구분하는 범주화를 재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이 필히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상상/맥락 조건하에서의 두 점선의 교차점이 인식의 경계점이라는 언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차점에서는 컵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그릇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같기 때문이다. 둘째, 폭-깊이 비율이 대략 1.4인 용기에 대해 피험자들의 응답률이 같았다는 사실을 기술해야 한다. 셋째, 이 실험결과를 〈자료 5〉의 범주화 방법에 적용해 정의해야 한다. 즉, 폭-깊이 비율이 1.4보다 적은 용기는 컵으로, 1.4보다 큰 용기는 그릇으로 구분하는 재범주화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이 3가지 사항 중 1개 항목을 생략했거나, 기술했어도 논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 A0 또는 A-로 판정함
	A0	
	A-	
B	B+	실험결과를 잘 해독하여 교차점을 언급하였으나, 사전적 정의를 통한 재범주화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 기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 A0 또는 A-로 판정함
	B0	
	B-	
C		실험결과를 잘못 해독하여, 재범주화를 시도한 경우
D		실험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만을 기술하거나, 또는 재범주화에 대한 잘못된 내용만을 기술한 경우
F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2015학년도 수시모집 외국어특기자전형 대비 모의시험

에 세 이

수험번호 ( ) 지원모집단위 ( ) 성명 ( )

※ 아래 글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해당 외국어로 쓰시오.

Northern Ireland의 Ulster대학 교수인 Richard Lynn은 특정 과제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수행 능력 차이가 남녀의 IQ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런 견해에 반대한다.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는 인지적 과제를 수행할 때 관찰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연구에 참여한 개인 간 차이이거나 남성과 여성의 선호 과제에 따른 차이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남성은 머릿속에서 사물을 회전시키거나 길을 찾는 능력 등에서 여성보다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여성은 단어를 암기하고 회상하는 과제나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 물체를 빠르게 식별하는 능력 등에서 남성보다 우월하다. 길을 찾는 과제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길 찾기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었지만, 길을 찾는 과정에 등장하는 이정표를 식별하고 기억하는 데에는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직업에서 남성 또는 여성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수험생 본인의 의견을 적절한 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

〈작 성 시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90분임.
2. 아래와 같이 답안의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띄어쓰기 포함)
   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는 주어진 쇄선 형태의 답안지에 25~30행 내외로 작성하시오.
   나. 중국어는 주어진 원고지 형태의 답안지에 400자~500자 정도로 작성하시오.
   다. 일본어는 주어진 원고지 형태의 답안지에 800자~1,000자 정도로 작성하시오.
3. 자신을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마시오.
4. 제목을 쓰지 마시오.
5.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하시오.

2015학년도 모의 에세이 출제 의도

1. 출제 방향

가. '외국어특기자전형'은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제출이 의무 요건인바 상당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재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지원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의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출제 방향을 정하였다.

나. 에세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서 친근하고 시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본 전형 트랙이 요구하는 외국어 글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난이도를 가진 것으로 선택하였다.

2. 주제 선정

인간의 성(gender) 차이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 과거에는 성차별적인 접근이 있었고, 주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한 때는 인간의 성별과 관련된 논의 자체가 억제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보다 실질적인 남녀의 차이점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남녀 차이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도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인 Richard Lippa는 실질적인 직업선택의 선호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많은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본 외국어특기자전형은 외국 고등학교 수학 경험이 있는 학생 등이 주로 지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문화에도 적응한 학생들이 많다. 남녀의 차이에 관련되는 문제는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접근해야 하겠지만 모든 인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문항에서 다루는 '남녀의 성 차이'는 지원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주제라고 판단된다. 이는 국제적인 식견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본 전형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3. 기대 효과

가. '외국어특기자전형' 시험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국내 고등학교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의 조기 발굴을 통해 장차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부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최고수준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사고와 어학 능력을 갖춘 인재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가 본 대학교에 요구하는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나. 다른 한편,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학습하는 학생으로서 세계화 속에서 사라져 가는 소수 언어와 문화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심도 있고 보편적인 사유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지성인으로 갖추어야 할 문제의식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4. 주요 내용(핵심어/ 요지)

최근 남성과 여성의 과제 수행능력에 관한 차이가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 성별과는 무관한 개인의 능력 차이 또는

개인적인 선호도의 차이로 해석되고 있다. 성별로 인해 또는 개인적인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인지능력이 발달함으로써 특정한 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수행능력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성별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인지능력이 발달한다면, 특정 직업 영역에 적합한 남성/여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특정한 직업에 배제되어야할 성별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는, 성별의 차이보다는 개인적인 인지능력의 발달이 과제수행능력을 좌우한다면 전혀 다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문항에서는 통계적인 자료나, 체계적인 연구 분석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각 지원자는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주관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표현의 적절성, 내용의 구성력 등을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다고 판단된다.



2015학년도 모의 에세이 채점 기준

1. 논리 능력

가. 분량 및 내용의 충실성 : 요구하는 분량과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충실하게 글로써 표현하고 있는지,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적정 분량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문제 이해를 잘못하여 질문과는 상관없는 답안을 이행한 경우 점수를 감점한다.

나. 논리적 정합성 :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제시가 명확한 지 판단한다. 예시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으나 분명한 상황전개는 필요하다.

2. 외국어 능력

가. 문법성 : 철자, 시제, 인칭, 수량, 관사 등의 문법요소의 오류를 중심으로 문법적으로 문장의 일부나 전체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나. 어휘 표현 및 문체의 적절성 : 필요한 어휘와 표현 및 문체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내용	항목별 채점방식
평가척도 1 : 분량 및 내용의 충실성	A, B, C, D, F 5개의 등급으로 채점하고 총점도 5개 등급으로 채점
평가척도 2 : 논리적 정합성	
평가척도 3 : 문법성	
평가척도 4 : 어휘 표현 및 문체의 적절성	

2015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1. 201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요약

모집 시기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 최저	미등록충원
			서울	글로벌			
수시 모집	학생부교과전형	일반	115명	258명	학생부 교과 100%	적용	실시
		고른기회	-	38명			
	학생부종합전형	일반	295명	306명	1단계 : 서류 100%(3배수 선발) 2단계 : 서류 70% + 면접 30%	-	
		고른기회	26명	-			
	논술전형		511명	120명	논술 70% + 학생부 교과 30%	적용	
	외국어특기자전형		114명	35명	에세이 70% + 공인외국어 시험 성적 30%	-	

2. 수시모집 지원 횟수 6회 제한

수시모집의 지원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단,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제외)을 포함한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초과 접수한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가 되므로 수험생들은 이에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지정 응시 영역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에 지원하는 모든 수험생은 전형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 모집단위 계열별로 지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모집 단위	지정 영역
인문계열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과학탐구
자연계열	국어A, 수학A/B, 영어, 과학탐구

4.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전형명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비고
학생부교과전형	[해당 모집단위]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인문] 국어B, 수학A, 영어 중 1개 영역 등급이 3 이내 [자연]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1과목) 중 1개 영역 등급이 3 이내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사회탐구 영역 1과목으로 대체 가능
논술전형	[Language&Diplomacy학부] 국어B, 수학A, 영어의 등급 합이 4 이내 [전 모집단위(Language&Diplomacy학부 제외)]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해당 모집단위]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없음		
외국어특기자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없음		

2015학년도 한국외대

모의 논술 및 에세이 자료집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ww.hufs.ac.kr

서울캠퍼스 입학관리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 02. 2173. 2076~8

입학사정관실
T. 02. 2173. 2083~9

글로벌캠퍼스 입학관리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 031. 330. 4299, 4399, 4599